

(붙임 2): 중요 회수 문화재 자료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1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1	조성시기	1689년	크기 (cm)
	도난일시·장소	2004. 5. 13.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161-1, '정방사'	



○ 충청북도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206호)으로 이 보살상은 2004년 5월 13일에 도난당했지만, 도난 이전에 복장조사를 통하여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1689년에 조각승 단웅, 보웅, 유태, 탁밀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을 만든 조각승 단웅과 탁밀은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조각가이다(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물사전-불교조소』, 양사재, 2007 참조).

○ 보살상은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 제작된 전형적인 형태를 다르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조각승 색난, 승호, 마일 등과 차이가 있어 단웅의 조형 감각을 밝힐 수 있는 불상이다. 보관 정면에 화불은 복원하여 만든 것이다.

○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康熙二十八年歲次己巳… 左補處大施主 貴今 右補處大施主 今伊 佛像施主朴梧龍兩主 證明 行修 持殿 靈贊 畫工 端應 宝雄 裕特 琢璘…(『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북도 자료집』,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 p. 67)”이라 적혀있다.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 (1점)			비지정문화재
2 조성시기	1686년	크기(cm)	가로 320, 세로 370
도난일시·장소	1988. 12. 24.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벽곡리 794 '대비사'		



○ 370×320cm 크기의 대형 불화이다.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8보살과 십대제자 등 많은 권속을 화면 가득히 표현한 전형적인 조선후기 영산회상도이다. 각 존상의 섬세한 표현과 밝은 채색 등 17세기 후반 불화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린 海雄, 義均, 尙明은 청도 적천사 괘불과 동화사 아미타후불도를 조성한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화승들이다. 화기의 주요 부분이 남아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급의 불화로 평가된다.

○ 화기: “康熙二十五年丙寅六月日 靈山會幀奉安 …… 緣化秩 證明 克勒 持殿 一淸 畫工 海雄 義均 顯瑄 尙明 ……”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 (1점)			비지정문화재
3	조성시기	1749년	크기(cm) 가로 335, 세로 295
도난일시·장소		2000. 5. 30. /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산 1602, '용천사'	



○ 화기에 봉안처가 인위적으로 지워졌으나 <도난문화재정보>의 사진과 대조한 결과 乾隆14年 己巳년에 제작된 청도 용천사 대웅전 후불화로 확인된다. 짜임새 있는 구도와 유려한 필치로 그려진 불화로 진한 채색, 인물과 문양 등의 세부 표현이 전형적인 18세기 중반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전반적인 작품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絹本바탕이 훼손되어 아랫부분의 탈락이 심하고 심지어 보수시 배접지에 직접 칠을 한 흔적도 남아있다. 화기의 일부 부분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

○ 화기: “乾隆十四年己巳■」安于靈山會□尚左道■」□□■■■」■大雄殿」施主秩」婆蕩彩色供□布施□」辯大施主嘉善大夫智□」願以此功德往生淨刹□”.

4	삼척 영은사 영산회상도 / (1점)		비지정문화재	
	조성시기	1811년	크기(cm)	가로 308, 세로 390
	도난일시·장소	1993. 4. 21. / 강원도 삼척시 궁촌리 924 ‘영은사’		



○ 嘉慶16년(1811)에 제작된 영은사 영산회상도로 도난 과정에서 화면의 상하를 칼로 오려내었고, 화면이 횡으로 꺾이거나 박락 현상이 심하다. 화기 중 제작 연대와 봉안장소를 기록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뚜렷하다.

○ 이 불화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화승 戒性이 주도하여 제작한 것이다. 전체적인 구성, 인물의 표현, 채색의 양상 등 19세기 초기 불화 중 수작으로 판단된다.

○ 화기: “嘉慶十六年辛未四月二十九日奉安 [redacted] 新佛三位大施主…” / “緣化秩 證明 守一 ……金魚片手比丘 戒成 副比丘 瑄甫 隱虛堂 天守 漢裕堂 道澄 松岳堂 謹□ …”

5	청송 대전사 신중도 / (1점)		비지정문화재	
	조성시기	1806년	크기(cm)	가로 205, 세로 261
	도난일시·장소		2000. 9. 4. /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 청송 대전사 신중도와 일치하는 불화이다. 특히 좌우 배접의 기록 흔적과 화면 향좌 하부의 손상부위는 새로이 배접을 하면서 보수하였지만 그 위치는 원본과 정확히 일치한다. 화면의 꺾임 현상과 박락이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각하다.

○ 화기는 대부분 인위적으로 훼손되는데, 향좌측 화기중 연화질의 내용(…… 供養主比丘 幻□, 比丘 抱□, 比丘 幻□, 熟頭 定□, 比丘 幸文……)은 대전사 명부전 지장도(1806)의 화기와 같아 함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예산 수덕사 지장시왕도 / (1점)		비지정문화재	
	조성시기	1736-1795년	크기(cm)	가로 235, 세로 222
	도난일시·장소		1993. 7. 9.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1 '수덕사'	



○ 화기가 지워져 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작품의 양식으로 乾隆연간 (1765~1795)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도난 신고 목록 및 도난백서에 실린 수덕사 대웅전에서 도난당한 지장시왕도와 동일한 작품임을 알 수 있으며 도난 이후 배접부분의 화기를 없애고 새로이 제작하였다.

○ 당시 함께 도난된 신중·칠성·산신·독성·현황도 등 5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7

예천보문사 삼장보살도 · 아미타회상도 / (2점)

비지정문화재

조성시기

1767년

크기(cm)

1. 가로168, 세로165
2. 가로229.2, 세로156.8

도난일시 · 장소

1989. 6. 5.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158 '보문사'



○ 보문사 삼장보살도는 보편적인 삼장보살도의 도상과는 달리 중앙에 지장보살, 좌우에 천장과 지지 보살을 배치하였고, 화면 하단에 지옥장면을 그려넣은 독특한 구도이다. 부분적으로 가칠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구성과 필력, 표현력 모두 우수하며 18세기 양식의 불화이다.

○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1767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화기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丁亥'는 남아있다. 양식상 18세기 중엽경의 불화양식이므로 丁亥年을 1767년으로 볼수 있다.



○ 중앙의 본존인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협시불과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는 이 작품은 양식과 구성, 색채 등이 보문사 삼장보살도와 유사하다. 본존의 신광에는 섬세하고 화려한 보상화문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짜임새 있는 구성, 존상의 섬세한 표현, 유려한 필선과 채색 등에서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불화로 볼 수 있다. 배접을 새롭게 하였고 헤어진 바탕천 부분은 배접지에 직접 채색하였고 부분적으로 가채되어 있다.

○ 화기 중 소장처와 제작년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심하게 손상되고 하단부분은 절단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亥'자가 남아있는데 삼장보살도와 같은 '丁亥'년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